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경진 의원, 송갑석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장병완 의원, 김동철 의원, 최경환 의원. /광주시 제공

“현안 해결·국비확보 정당 따로 없다”

이용섭 시장-지역 국회의원, 국회서 정책간담회
광주수영대회·광주형일자리·군 공항이전 등 건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22건 국비 3,307억 요청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계수영대회 북한참가와 광주형일자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당면한 지역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권은희 의원, 김경진 의원, 김동철 의원, 송갑석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청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수영대회 북

한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5·18 40주년 기념사업 전국·세계화 ▲군 공항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CT 연구원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등 지역 현안 10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국비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지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등 22

건 3,307억 원의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주형일자리 행·재정적 지원,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형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적극 지원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애란 기자

해남 황산에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원

화장로 3기·봉안당 등 갖춰...서남권 장례문화 개선

해남·완도·진도 3개 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완공돼 25일 해남 한울원 광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원식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도의원, 군의원과 3개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장사시설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전남 서남권에 화장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 운영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인접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함께 추진했다.

특히 화장장은 비선호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3개 군이 함께 협의해 사업을 추진, 상생 협력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모공원은 총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원 8만 7,062㎡에 지어졌다.

2016년 12월 착공해 2년 4개월 만에 완공됐으며 3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을 갖췄다.

봉안당 안치 기수는 1만7,421기, 자연장지 안치 기수는 1만984기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3개 군민 7만원, 관외 거주자 50만원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체육지수’ 지자체 최초 개발한다

분야별 세부지표 산출 효율적 정책 반영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육지수를 개발한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광주체육지수 개발 협업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체육지수 개발 협업팀’은 지난 3월 광주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전남연구원, 조선대 체육학과 등 12개 기관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업팀은 광주체육지수 추진 배경, 광주체육지수 관련 세부 지표 개발 체계 등을 논의했다.

협업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회의를 열어 ▲체육지수 체계 정

의 ▲체육인수, 체육시설 등 체육 관련 현황조사 ▲시민대상 체육시설 욕구조사 및 결과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모든 체육관련 현황을 분야별로 통계, 수치화 가능한 세부지표로 개발하고 체육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산출된 광주체육지수는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체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 등 체육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 전문, 생활, 장애인, 학교체육 등 분야별로 나눠 추진되면서 발생한 체육 업무 문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소한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청사 방호 시스템 예산 또 삭감

시의회 “시민 정서 고려 열린 청사 운영해야”

광주시 청사 방호 시스템 도입 계획이 의회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돼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에도 시청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발목이 잡혔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청사 방호 시설 설치비 3억원과 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시

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에게 ‘열린 청사’가 아닌 폐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하려 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1·2급 보안시설인 공공청사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정보유출, 공무원 보호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호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 청사를 열린

공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번번이 무산됐다.

시가 도입할 예정인 스마트형 스피드 게이트는 별도의 출입증 없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에서는 청사 방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아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고 설치 요구가 많다”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 초경량 금속 신소재산업 육성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역점 추진

전남도가 초경량 금속 신소재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과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과잉설비 확대, 원료시장 불안정성 지속, 환경 규제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수요산업 침체 등으로 철강재의 공급과잉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철강산업의 세계적 추세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가벼우면서도 강인하고,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갖춰 가공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경량소재’ 개발 요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마그네슘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사업을 구상, 2020년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를 통해 미래 기술 발전에 따른 마그네슘 소재시장 확장에 대비하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포항시와 함께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사업’을 기획, 광역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참여 분야는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망간강을 활용한 LNG저장탱크, 내마모성 배관 등을 제품화하는 국내 최초의 실증장비를 구축, 가공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고망간강 신소재산업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전남이 이 분야를 선점, 금속 신소재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승강기안전체험관 개관

광주시는 승강기 감험사고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승강기안전체험관을 25일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승강기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서 개관 준비를 해왔다.

시청 1층에 마련된 승강기 안전체험관은 지난 3월까지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4월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행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승강기 체험 및 감험사고 구조훈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승강기안전체험관은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체험관은 평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2·4시 등 3회 운영되며, 휴일은 2주간격으로 토요일에만 평일과 같이 운영한다. 공휴일은 휴관한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러시아산
Siberian Chaga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량 건조 농축분말

Vitamin House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